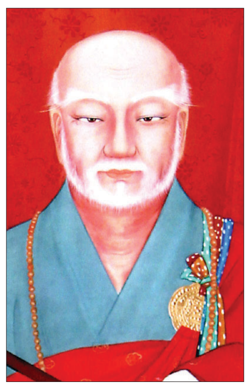
연회국사

보우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기율사

영암 스님

석주 스님

9월 24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린 '역대조사다례재' 모습

'천년의 전통 천년의 미래'

봉은사 1220주년 개산대재

불자·시민, 가을 문화 축제에 젖다

불자들이 봉은사 개산 1220주년을 맞아 마련한 국화축제의 국화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봉은사와 추사 김정희' 전을 둘러보고 있다.

다례재에 이어 판전 화엄경을 이운하는 정대불사가 진행됐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만개한 국화꽃들이 봉은사를 찾은 시민들을 반겼다. 시민들은 일주문 앞 국화 법성도를 돌고 대웅전까지 이어진 국화길을 걸으며 불교의 향기를 느꼈다.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로 시민과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봉은사(주지 원학)가 개산 122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었다.

먼저 국화꽃이 도량을 장엄한 가운데 개산대재를 알리는 역대조사다례재가 9월 24일 봉행됐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의 집전 하에 24일 오전 11시 경내 법왕루에서 열린 역대조사다례재는 창건주인 연회국사를 비롯해 보우 국사, 서산 대사, 사명대사 등 7명의 역대 조사 진영을 영단에 모시고 예를 올리고 그 사상과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법왕루를 가득 메운 1000여 불자들은 지금의 봉은사를 있도록 한 수많은 불자들의 노력을 이어가며, 봉은사를 새로운 불교중흥의 터전으로 만들자며 서원했다.

원학 스님과 최정수 신도회장 등은 다례재에 이어 역대조사들의 사리가 봉안된 부도전을 참배하고, 포교와 전법, 수행의 사찰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이날 봉은사 개산대재에서는 지구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제4회 행복나눔 바자회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봉은사 경내 곳곳에는 마련된 국화길에는 12지상으로 장식된 소원을 비는 공간이 마련됐으며 '전통 차 시연회' 와 '신도 사진전' 등도 함께 열렸다.

바자회에는 홀몸어르신 반찬 봉사 연등조직인 작은보시큰자비의 김치 판매,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아나바다 물품나눔 등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국화꽃에서 퍼져 나오는 향기에 봉은사로 향한 시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뜻깊은 행사에 삼삼오오 동참했다.

인근 회사에서 점심시간 봉은사를 찾은 김은경 씨(32)는 "무심코 찾았는데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 행사에 동참했다. 물품들이 다양하고, 특히 유기농 음식 등이 다양해 좋았다"며 참가소감을 밝혔다.

봉은사 신도회는 행복나눔바자회를 통해 지난 2011년 미얀마 제따원 학교 건립 후원을 시작으로 2012년 삼흥학교 기숙사 건립 및 음악회 후원, 2013년 아프리카 탄자니아 조계종 농업학교 건립을 후원한 바 있다.

이날 바자회 수익금과 신도사진전 사진 판매 수익금은 모두 국제구호단체 월드머시를 통해 베트남 학교 건립 기금으로 사용된다.

오후에는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도 바자회 행사장을 돌며 자비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신도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오후 봉은사 보우당에서는 '봉은사와 추사 김정희' 를 주제로 특별강

다례재 시작으로 다채로운 행사
국화축제·바자회 등 인기
추사 김정희 불교 유품 공개
가요, 풍물 어우러진 음악회도

연회가 이어졌다. 강연회에는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봉은사의 역사와 사격' 을, 김현권 세종대 교수가 '추사 김정희의 꿈, 판전' 을 각각 발표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학교 교수와 김현권 문화재청 감정위원는 강연에서 수많은 역사의 부침 속에서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았던 봉은사 역사와 말년에 봉은사에 머물던 김정희의 인생이 어떻게 '판전' 이라는 명필로 승화될 수 있었는지 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또 26일에는 봉은사 판전에 보관된 국내 유일의 화엄경소초판 인경본을 정대하는 정대불사가 진행됐으며 이날 저녁에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특히 봉은사 개산대재의 백미는 봉은사 특설무대에서 열린 산사음악회 였다. 과거와 현재의 화합을 보여주는 KBS2 음악프로그램인 '불후의 명곡' 을 콘셉트로 삼아 신·구세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열렸다.

산사음악회에서는 인기가수 정동하와 서문탁, 클래지콰이(호란), 포맨, 소리아, AUX, 봉은사 풍물단 및 무용단 등이 음성공양을 올리고 식전영상 상영을 통해 봉은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물론 미래의 비전도 함께 제시됐다.

한편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추사 김정희의 작품과 봉은사 성보를 선보이는 특별전이 문을 열었다. 특별전은 12월 14일까지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역대 조사 다례재 귀중한 문화유산"

인터뷰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1220주년 개산대재에 대해 "봉은사는 억불숭유의 조선시대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의 노력으로 불교의 맥을 이어온 곳"이라며 "봉은사의 개산을 축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선풍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학 스님은 "역대조사 다례재는 큰 스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중한 정신적 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길을 우리가 답습해 가야한다는 다짐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학 스님은 "봉은사 개산을 축하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계기로 삼고자 불자들은 물론 서울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한국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주제로 마련했다"며 "한국불교를 새롭게 바꿔하는 원력의 도량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봉은사는 선종수사찰이자 조선불교의 중흥 도량으로 일컬어지는 곳으로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사찰이지만 대웅전을 비롯해 법왕루, 천왕문, 일주문 등을 갖추고 있는 고찰이다.

특히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된 선불당은 조선 중기 이후 승려가 되기 위해 치러졌던 시험인 승과가 시행되던 곳으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도 이곳에서 배출됐다. 이번 개산대재에는 생애 마지막을 봉은사에서 지낸 추사 김정희 선생과의 인연도 대중에 알려졌다.